

제 51회 명륜 신입생워크숍 <원더풀 라이프>

무대팀 인수인계서

(인수인계서는 무대팀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읽고, 각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읽으세요!)



▼ 무대팀 노예들...

59기 강수빈(팀장) 010-3760-7630

60기 강수민 권소영 김소연 박지영 오하늘 이주연

원형극장 - 림보라는 이름의 낡은 목조 건물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극회에서 주로 쓰던 좌우대칭 구조에서 벗어났고, 단을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시켰습니다. 그 결과 왼쪽으로 무게감이 쏠려버리는 리스크가 생겨 걱정했지만, 최종적인 무대 느낌은 예뻐했습니다. 단을 중심으로 왼쪽은 사실무대의 성격을 가지고 가고, 오른쪽은 추상무대의 성격을 지닌 무대를 의도했습니다.

오른쪽 뒀이 수평을 이루지 않고 조금 뒤로 누웠는데 관객석에서 별로 티가 나지 않고 넓어보이는 느낌과 뒷공간을 더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겁니다.

등퇴장경로를 4개로 하면서도 원형극장의 좁은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왼쪽은 공간을 두고 앞으로 반벽을 하나 세웠고, 오른쪽은 각목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까만 천을 타카로 박아서 커튼처럼 만들었습니다.

무대를 최대한 넓히고 안정감 있게 만들기 위해 원형극장 벽에 공중와꾸, 바닥와꾸 이중으로 고정했습니다. 공중에 다는 와꾸(각목)는 원형극장 벽과 같은 까만색으로 칠해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조명 비춘 모습 (측면)



단차 부분

(똑같은 페인트를 칠했음에도 마스킹한 부분 색이 달라서 박스테이프 붙인 것처럼 됐습니다..ㅠㅠㅠ잉 무대팀 똑땅해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으나 저게 최선.... 우선 이럴 때는 페인트가 마르고 나서 한 번 더 칠하는 방법과 옆벽과 차이가 덜 나도록 옆벽까지 가로로 칠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인트 색이 열어서 둘 다 했는데도 저 정도였습니다.)

〈개괄적으로 무대팀이 하는 일〉

무대팀이 하는 일을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개힘듭니다. (도망쳐....) 공연 준비 기간 초반에는 벽 구도 잡느라고 대가리가 뽕개지고, 후반에는 생전 처음 해보는 노가다를 하느라고 어깨와 다리 근육이 조져지는, 그냥 **노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열악한 환경 + 철야 때 몸 쓰는 조명팀과 친해지면 좋습니다.) 그치만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람이 크고 중독성 있는 재밌는 일입니다!!

무대팀이 하는 일은 순서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초작업

- 제반 조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얼마나 구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무대 설치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 실측: 무대가 세워질 극장의 크기를 실제로 측정합니다.

2) 무대 디자인

무대 디자인을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박스나 스티로폼을 잘라서 구상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는데, 이 작업을 미니어처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아마 설치 당일까지 계속될 겁니다. 계속 빠꾸를 먹고 수정이 됩니다. 몸 쓰는 일은 힘들어서 박칠 겨를도 없는데 무대 디자인 수정하는 건...

3) 제작 (무대 작업)

설치 당일에는 벽을 세우고 바닥을 까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작업을 미리 끝내놓습니다.

주로 자재 구입, 사용할 벽과 합판 페인트칠, 대도구 손질 등을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세요.

4) 설치 (개고생 하는 날)

설치는 공연 하루 전날 공연을 할 극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날은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고 절대 노는 손을 만들지 마세요. 물론 계획을 철저히 세워도 계속 변수가 생기고 돌발 상황이 생겨서 계획대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 (이번 공연 때는 폭풍우가 온다는 기상예보 때문에 야외작업이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합판과 벽은 비맞으면 휩니다.... 미리 경영관으로 자재들을 다 옮기고 용달까지 받아 왔으나 짐을 보관할 수 없다는 통보가 내려와서 다 빠꾸먹을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어쨌든 무대는 세워야 합니다..... the show must go on.... 그래도 그나마 일을 빨리 끝내고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둬야 합니다.

순서는 크게 바닥 깔기 -> 벽 세우기 -> 대도구 들여놓기입니다.

- 바닥 깔기: 바닥재(합판, PVC)를 이용해서 무대의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 벽 세우기: 벽을 세웁니다. 와꾸를 박는 방법과 니쥬를 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인수인계서보다는 선배들이 하는 걸 직접 보고 배워야 합니다.
- 대도구 배치하기: 대도구는 말 그대로 큰 도구입니다. 소파 침대 같은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철거

막공이 끝난 후 벽을 허물고 바닥을 뜯어내고 남은 자재들을 동방에 들여놓습니다.

1. 전초작업

- 제반조사

부족한 자재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제작 전에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제반 조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제작 중에 부족한 자재가 생겨 급하게 구입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비용도 더 비싸고 (기획팀한테 욕 먹음 주의) 효율 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동방에 있는 모든 자재의 수량을 자세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못, 망치, 각목, 벽, 합판, 페인트 등은 직관적으로 무대 작업에 필요해 보이지만, 마스킹테이프나 케이블타이, 노끈 같은 것들은 무대팀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잘 몰라서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반조사 때 참고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인트	지난 공연에 남은 페인트가 있을 겁니다. 굳지 않았다면 또 쓸 수 있습니다. 섞어서 써도 됩니다. (이번 공연에선 여름 공연 <대학살의 신> 때 쓴 갈색 바닥 페인트에 검정 페인트를 섞어서 고동색 페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크릴	페인트 소량을 사기엔 아까울 때 아크릴 물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붓, 롤러	붓과 롤러는 잘 씻어서 보관해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타이	조명팀과 같이 씁니다.		
벽	벽은 합판 뒤에 각목을 일자로 박아서 만듭니다. 잔못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공연 이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벽이 너무 더러우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목을 떼어내서 뒷면에 박아서 앞뒤를 바꿔 사용하거나, 가려지는 뒷벽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벽은 온벽과 반벽이 있습니다. 온벽은 1200*2400(mm) 반벽은 600*2400 벽이나 대도구를 손질할 때, 벽 세울 때 틈을 막기 위해 등등 아주 많이 씁니다. 넉넉하게 사놓으세요.		
마스킹테이프	비쌌. 무대팀에서 쓸 건 아니고 캐스트들한테 알아서 붙이라고 주면 됨		
아광테이프	각목은 긴 각목과 조각각목으로 나누어서 제반조사합니다.		
각목	한 단에 12개입니다. 벽을 세우려면 한 단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못	잔못/중못/대못/십자나사못 등이 있습니다. 대못은 각목이 부서질 수 있어서 잘 안 씁니다. 중못을 가장 많이 씁니다. 중못은 항상 넉넉히 구매하세요. 잔못 중못 대못은 극회에서 대략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중못 가져와” “잔못 가져와”) 쓰는 말입니다. 못 구매하러 가서 ‘중못 주세요’ 하면 사장님 당황하십니다. 사이즈 별로 못이 있을 텐데 3-4cm 정도가 중못입니다.		
합판	벤치	타카	십자못
목장갑	니퍼	타카심	전동드라이버
망치	노끈	송곳	직쏘기
톱	꺾쇠	드라이버	

*이외 필요한 것 모두

- 실측 자료

명륜 원형극장: 지름 830cm

울전 소강당: 세로 630 가로 1215

2. 무대 디자인

1) 대본 분석

내용 파악보다는 무대를 이미지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용 파악은 캐스트의 일이고, 무대팀은 무대를 만드는 사람의 시각에서 대본을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장소를 이미지화하면서 대본을 읽으세요. 무대가 실현해야 할 장소를 기록하고, 분위기를 정합니다. 레퍼런스(분위기나 색감 면에서 참고할 이미지)를 찾아보면 좋습니다. 대도구 리스트를 만듭니다.

[예시]

대본분석

<장소 분석>

상담실(독립된 공간으로, 사무적인 느낌)

회의실

망자들의 방(잘 꾸며진 느낌)

소장방

시혁 방

연극 공간(스크린)

아영 집

학교 상담실

밖(벤치)

<분위기 분석>

- 이승과 저승의 경계: 꾸며 놓을 건 꾸며 놓고, 구색을 갖추었지만, 망자들의 공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어딘가 외롭고 쓸쓸하고 차가운 느낌을 살려서 관객들에게 여운이 남도록 한다.
- 낡은 목조 건물: 고즈넉하고 조용한 느낌. 마찬가지로 위의 외로운 분위기를 가져간다. 낡은 느낌, 회색을 섞은 탁한 색을 기본으로 한다. 빛바랜 색깔의 대도구와 소도구를 사용한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아크릴 물감으로 얼룩과 점을 표현한다.
- 망자들의 암울한 기억과 다소 희망적인 결말: 은은함을 살린다.

<대도구 리스트>

책상 2개

의자 4개

소파

벤치

사다리

러그

책장

2) 벽 구도

무대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벽 구도는 한 번에 픽스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얹어지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빠꾸를 먹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벽 구도 구상하다보면 독배기가 아파서 차라리 망치로 부수고 싶을 겁니다. 진짜로.... 마음을 잘 진정시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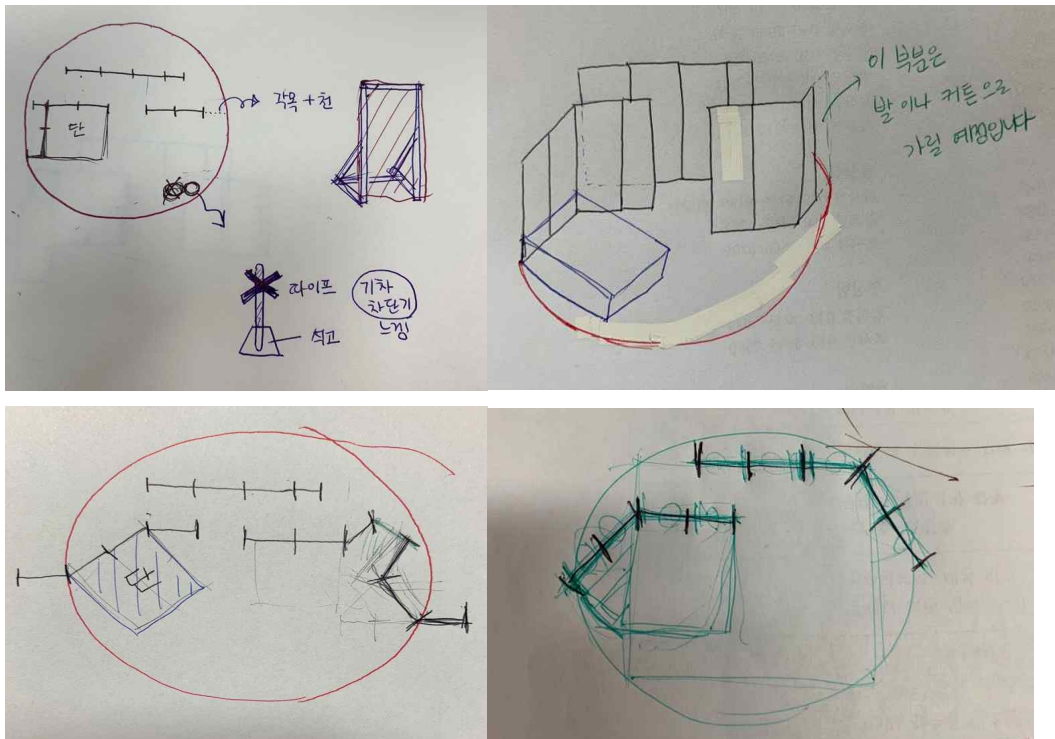
벽은 주로 '뒷벽'과 '윙'으로 구성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중앙에 보이는, 중심을 잡아주는 벽이 뒷벽입니다. 윙은 양 사이드 벽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기본적인고 안전한 세팅일 뿐이고 극에 따라서 뒷벽을 꺾거나 윙을 하나 혹은 서너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연출하시면 됩니다.

벽 뒤에서 캐스트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분장을 고치거나 혹은 다음 씬을 위해 대기합니다. 그러므로 캐스트가 대기할 공간을 남겨줘야 합니다. 또 뒷벽과 윙벽 사이에 공간을 뒤편 캐스트들이 등장, 퇴장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벽의 구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때는 그림 두 개를 그려보면 쉽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립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서 봤을 때 무대 뒤(캐스트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가 보이면 안 됩니다. 관객석에 앉았을 때 무대 뒷부분, 좌우 댄 부분(벽에 못질한 각목)이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



3) 미니어처 제작

벽을 실제로 설치하면 어떤 느낌일지 알기 위해서 박스, 스티로폼, 하드보드지 등을 이용해서 작게 모형을 만들어 보는 작업입니다. 온벽의 실제 크기가 2400*1200(mm)인데, 이를 10*5(cm)로 줄여서 자르고, 무대 크기도 그 비율에 맞게 줄여서 사용합니다. 미니어처를 제작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무대 뒷부분이 보이지는 않는지 체크하여 수정합니다.

[예시]



4) 무대 디자인 완성

벽의 구조가 대략적으로 완성됐으면 더 디테일한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 벽과 바닥의 색깔

* 바닥재 종류

- 바닥재는 주로 합판 또는 PVC를 이용합니다. PVC로 바닥을 깔 경우 매우 까다로우니(최소 5명은 붙어서 해야 됨) PVC를 요구하는 연출한테 쌍욕을 한번 박고 경험이 있는 선배를 미리 섭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PVC는 방산시장에 파는데 진짜... 겁나 무거우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 벽을 어떻게 꾸밀지

- 창문이나 문을 뚫을 때도 경험이 있는 선배와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경험이 있는 선배 자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창문이나 문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연출한테도 쌍욕을 한번 해주세요.

- 뭘 붙이기로 결정했을 경우, 어떻게 붙일 건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철거 후 떼낼 때 자국이 많이 남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공연진이 그 벽을 쓰기가 곤란해집니다. 웬만하면 오래돼서 이번에 쓰고 못 쓰겠다 싶은 벽에 붙이세요.

3. 제작

〈자재 구매〉

- 자재를 구매할 때는 인터넷, 방산시장, 철물점 등 어디서 무엇을 살 건지 결정합니다. 자재 별로 인터넷과 소매점의 가격이 다릅니다. 또 방산시장 안에서도 가게별로 조금씩 가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발품 팔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산시장은 읍지로 4가역으로 나가면 바로 있습니다.
- 페인트, 못, 마스킹테이프, 야광테이프는 거의 항상 사게 됩니다. 페인트는 인터넷을 추천합니다. 무겁게 옮기지 않아도 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못은 철물점, 마스킹테이프는 방산시장 웬만한 가게에 다 있습니다. 야광테이프는 테이프집을 찾아 가야 합니다. 방산시장을 돌다 보면 테이프 전문점이 있을 겁니다. 5cm짜리 파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페인트 구매 시 유의점)

- 극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수성을 사야 합니다. 유성은 번쩍거리고 찌뚱거리고 잘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성은 섞어서 조색할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편합니다.
- 조명을 비추면 색이 밝아질 것을 고려하고 연출과 충분히 상의해서 색을 골라야 합니다. 한 톤 ~ 두 톤 정도 어두운 색을 사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두운 색을 고른 뒤 설치 단계에서 조명에게 색을 맞춰달라 부탁하면 됩니다. 색 맞추는 데에는 5분도 안 걸립니다.)
- 4L면 웬만하면 벽을 다 칠할 수 있습니다.

〈작업〉

무대 작업은 주로 페인트칠, 대도구 손질로 이루어집니다.

- 벽과 합판은 칠하기 전에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벽에 붙어 있는 마스킹 테이프, 타카심을 제거합니다. 타카심은 송곳이나 뿔피리로 뺍니다. 튀어나온 못은 망치로 두들겨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울퉁불퉁한 벽의 페인트 자국은 톱으로 갈아서 평평하게 합니다. 구멍이나 뜯어진 부분이 있으면 마스킹테이프를 막습니다. (이거 꼭 하세요. 안 하면 꼼꼼한 선배한테 혼남 울퉁불퉁 벽이 진짜 안 예뻐니다.)
- 롤러를 이용해서 한 방향으로 칠합니다. 붓, 손가락으로 세세한 부분을 칠하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 마르는 시간을 고려해서 페인트칠 해야 합니다. 그늘에서 칠하고 양지에서 말립니다. 아날로그 조명을 이용하거나 에어컨을 켜놓으면 빨리 마릅니다.
- 옷에 페인트가 묻을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 있으니 버려도 되는 옷을 입고 오세요.
- 수성 페인트가 몸에 묻어도 곧바로 물로 씻어내면 지워집니다. 당일엔 안 씻으면 며칠 갑니다. 그 상태로 어디 가면 다들 미술하냐고 물어봄.
- **신문지를 꼭 깔고 페인트칠을 해야 합니다.** (신문지를 깔지 않으면 바닥에 묻은 페인트를 다 닦아야 합니다. 안 하면 극화가 욕 먹음. 시간이 많이 들고 엄청 귀찮습니다.)
- 페인트를 쏟거나 바닥에 묻었다면, 개박치는데 얼른 정신차리고 굳기 전에 닦아야 합니다. 굳었을 경우 물을 들이 부어서 녹인 다음 톱 뒷면으로 긁어내며(개고생..) 닦습니다.
- **페인트칠을 끝냈으면 굳기 전에 롤러와 붓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굳어버려서 다음 공연에서 쓸 수 없고, 설치 날 갑자기 페인트칠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곤란합니다.

대도구는 주로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거나 페인트칠만 새로 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도구가 없으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또 있지만 어딘가 부서졌거나 크기가 안 맞을 때도 고쳐야 합니다. 대도구 제작과 손질 방법은 대도구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대도구를 어떻게 만들지 자세히 논의 후 필요한 것을 잊지 말고 사두세요.

작업 후에는 공구를 꼭 잘 챙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하고 난 자리도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바닥에 있는 톱밥과 쓰레기를 다 쓸어담고 바닥에 묻은 페인트가 있다면 무조건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 안전에 유의합시다.



이번 무대 작업 중에, 몇 년간 돌려쓴.. 매우 더럽고 녹슨 대못이 종아리에 박혀서 입원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운이 좋게도 통각이 없는 부분(한의원에서 침 놓는 부분)에 박혔고, 주요 혈관과 신경을 빗겨나갔지만

약 3cm의 깊은 창상과 종아리 가자미근 파열, 미세혈관 파열 등으로 이물질 제거와 근육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워낙 못이 더러워서 주변 피부 괴사와 염증으로 꽤 오래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종종 타카심에 굶혀서 피가 나거나 손, 다리를 다치는 일이 무대팀을 하며 자주 일어났었는데 소소한 상처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적이 많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목장갑을 꼭 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날카로운 톱, 못 등은 잘 치우도록 합시다!!!

혹시 이런 부상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응급센터로 가면 됩니다ㅠㅠ

4. 철야

철야는 개힘들기 때문에, 무대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배님들과 다른 공연진 스태프들이 많이 와서 바글바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러 올 수 있게 일정을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러 오시는 '비공연진 선배들'은 여러분보다 짬도 차고 경험도 풍부하고 일도 똑똑딱 잘하는 아주아주 소중한 인력입니다. 고학년이거나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바쁜 사람들입니다. 공연진도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망하든 말든 상관도 없는데, 후배들에게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 일부러 시간 내 와주신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합시다. 그리고 선배들이 와꾸 박 아주거나 어려운 일을 대신 해줄 때 보조-못 가져다주기, 각목 사이즈에 맞게 재고 잘라주기 등-를 잘 해서 다음에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합시다.)

시간대별로 상주 가능한 무대팀원들을 파악해서, (웬만하면 알바, 약속 등 일정 다 빼고 필참해야 함) 일정표를 만들고 공지하면 좋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시간대를 강조하여 와달라고 하면 효율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면 철야 당일 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철야는 바닥 깔기 - 벽 세우기 - 대도구 들여놓기로 진행되는데, 글로 설명하기가 힘들분더러 인수인계서 100번 읽는 것보다 설치 당일에 도와주러 오신 선배에게 직접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므로 설치 당일 선배들을 잘 모시고 배우도록 합시다.

철야 스케줄

날짜	시간	장소	내용	인원
6/6	21시	경영관	<자재 옮기기> * 동방 -> 원형극장 : 벤치, 책상 2개, 옷걸이, 노란색 라인, 책꽂이, 기차 처단기, 야광테이프) * 동방 -> 경영관 1층 처마 : 페인트, 공구함, 마스크테이프, 못, 각목(조각각목+새 각목 한 단), 목장갑	이주연, 박지영, 강수민, 김소연
	22시	울전	울전 철거, 용달	강수빈
	23시 ~ 6시	경영관1층 처마 밑	무대 작업 - 벽, 합판, 단차 페인트칠 - 창문 만들기 - 기획부스 안내판 만들기	강수빈, 이주연, 강수민, 김소연, 박지영
6/7	12시 ~ 15시	원형극장	1. 무대 작업 - 문벽 만들기 - 창문벽 만들기 2. 자재 원형극장 안으로 옮기기 (벽, 합판, 단차, 창문, 기획부스 안내판, 마스크테이프, 공구함, 못, 붓, 롤러, 각목, 목장갑, 각목)	이주연, 김소연, 박지영, 권소영
	15시 ~ 19시	원형극장	바닥 깔기	이주연, 강수민, 김소연, 권소영
	19시 ~ 22시	원형극장	벽 세우기	강수빈, 이주연, 강수민, 김소연, 권소영(17시까지)
6/8	12시 ~ 15시	원형극장	대도구 넣기, 보수	강수빈, 이주연, 박지영, 권소영

5. 공연 기간

공연 당일, **제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팀은 오퍼보고 뒤깅이 할 때 무대팀은 간단히 청소와 보수만 하고 땡가땡가 놀면서 다른 스탭팀의 속을 긁어줍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내가 만든 무대에서 캐스트들이 공연하는 거 보면 엄청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개고생한 걸 잊게 되고 다시 다음 공연 무대팀으로...)

막공 때 극회 전체가 모여서 시골벽적 사진 찍고 나면 망치를 챙겨서 철거를 합니다. 철거는 뒤풀이 하러 온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한 30분..? 동방에 자재 갖다 놓고 용달할 게 있으면 용달차에 싣고 나면 무대팀 개고생 끝!!!!!! 이 아니고 인수인계 써야 합니다... 인수인계서는 미리미리 써놓읍시다.

무대팀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만큼 정말정말 보람이 큼니다!

살면서 공구 쓸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무대팀을 한번 해보면 나중에 자취방 꾸미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말...

무대 안 세우면 당장 공연을 못 올리니까 연출한테 잘 협박 징징거리면서(도망친다... 무대 못 올리고 싶나...) 열심히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인수인계서에 이름이 적혀 있는 선배들에게 부담없이 연락해서 물어보거나 하면 됩니다. 신입기수라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선배한테 불쑥 연락하는 것이 왠지 무섭고 꺼려질 수 있지만, 막상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무대팀 파이팅!!!!

